한국 CFO 협회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자격인증

<성장과정>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직장생활을 하시느라 바쁘신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제가 할 수 있는일은 혼자 해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준비물은 자기전에 미리 챙겨 아침에 허둥대는 일이 없었고, 알람을 맞춰 놓아 스스로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아침 풍경은 다른 보통 집들과는 다른면이 있었습니다. 아침 잠이 많으신 어머니께서는 아침에 깨워달라는 부탁을 종종하셨고,그 어떤 알람보다도 믿음직하다며 좋아하시고 대견해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여온 습관은 학창시절을 거쳐오는 동안 단 한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는 성실한학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덤으로 얻는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이용하여 운동도 하고책도 읽음으로써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입사한 후에는 제주변의 모든 사람이 여유로운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일찍 출근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신조>

저의 생활신조는 타인을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대학교 3 학년때 처음으로 학교에 기숙사가 지어졌습니다. 네명이서 한 방을 썼는데 좋은 방원들을 만나 일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기숙사를 나와서도 그 때 방원들과 함께 자취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보통 룸메이트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냐고 신기해 합니다. 저는 그 핵심에 '존중'라는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원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사감선생님이 진행하시는 미술치료에 참여하였습니다. 일년동안 참여하면서 나를 알고 남을 이해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것에 대해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배웠던 미술치료의 사례들은 원당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에서 멘토링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채의 신으로 돌아온 대세, 인크루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자료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성격 및 특성>

평소 계획적이고 꼼꼼한 성격 때문에 친구들과 계모임에서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총무로서 하는 역할은 친구들로부터 곗돈을 거두고 통장관리, 영수증관리, 장부정리를 하는 것입이다. 일 처리를 빈틈없이 하는 탓에 친구들이 저를 믿고 따라줍니다. 저의 계획적이고 꼼꼼함이 업무에 큰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을때는 마음에 드는 동아리가 없어 담당선생님을 구하고 부원을 구하여 동아리를 직접 만든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때부터 동아리의 부장이되어 2년간 부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다른 동아리 부장들이 2학년 선배들이라 축제 때 힘들일도 있었지만 제가 먼저 만든 동아리 였으므로 책임을 지고 끝까지 축제진행을 했던일이 생각납니다. 이처럼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것 또한 저의 장점입니다.

<대학동아리 활동/봉사활동/사화당체경험>

2009 년, SK 와이번스 프로야구만 대학생 마케터로 활승하였습니다. 저는 대학생 마케터이기 이전에 진심으로 야구를 좋아하는 야구팬이었기에 더 열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조가 발표하였던 아이템들은 2011 년 현재 인천문학야구장의 외야 커플홈런존과 초가정자존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하였고 이 좌석은 연일 매진되며 그야말로 대박아이템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가근로장학생으로 발탁되어 일년간 원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 이곳에 발령받은 장학생은 저를 포함하여 4명이였지만 고된 업무에 3명의학생이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일년간 장학생들은 바뀌었지만 저는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님들은 물론 아동복지교사님, 자원봉사자들과 즐겁게 일하려고 노력하면서 졸업식전날까지 맡은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력사항>

2011 년 7월부터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거래지원팀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제 첫번째 사회생활을 좋은 공기업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업무는 거래지원팀에서 온라인화상수출상담회 총괄을 맡아 운영하는 것이였습니다. 저희팀에 여러명의 파견직 직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총괄을 맡아 공문작성부터 업체모집, 전화응대, 해외무역관 컨택, 인턴채용, 정산업무등 팀의 업무와 수출상담회 사업을 포괄적으로 해왔습니다. 파견직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정직원이상의 업무를 맡겨주셔서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기술>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1만 시간의 법칙'이란 이론이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최고의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만의 1만 시간을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함과 열정적인 자세로 어떤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인재, 타인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